

# 우리는 예수사람 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기도회 김태영 목사

찬양 Shem과 함께

대표 기도 최정현 형제

성경 봉독 시편 119:105~133 다같이

말씀 선포 밝은 길 손상률 목사

승리자의 길

기도회 다같이

봉헌송 다같이

축도 김태영 목사

광고 문정환 형제

축하순서 신민경 자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 『마이북 다이어리』中

## 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

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  
회장 이수연 자매 부회장 문정환 형제

##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대표 기도 및 봉사순 및 봉헌송

07월 08일	최정현 형제	박문영 자매순	
07월 15일	박은미 자매	이승환 형제순	
07월 22일	원서희 자매	이주호 형제순	
07월 29일	정혜진 자매	정혜진 자매순	

## Shem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찬양!

믿음 줄 수 없네



## 모임시간 안내

	2 /
	4 /
	10 /
	5 /
F. C	( )
G S	8 30

## 문정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광고들!

1. 그리스 단기 선교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많은 성원해주세요.  
\* 도착일은 7월 11일(수)입니다.
2. 단기선교와 수련회를 위해 새벽 6시 청년부 교사실에서  
기도회가 진행중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3. 오늘 청년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주십니다.
4. 순장님들, 수련회 참가 여부 오늘까지 파악해서  
박문영 총무님께 알려주세요. 꼭이요!
5. 여름 수련회가 7월 15-17일까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6. 예배 후 5시 30분 선교모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필리핀 가시는 분들 참석해주세요 ㅎㅎ

##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

팀장: 안미옥  
팀원: 이주호, 전은영, 최나영, 송경옥, 윤민홍, 선한용, 박희덕  
문서 선교팀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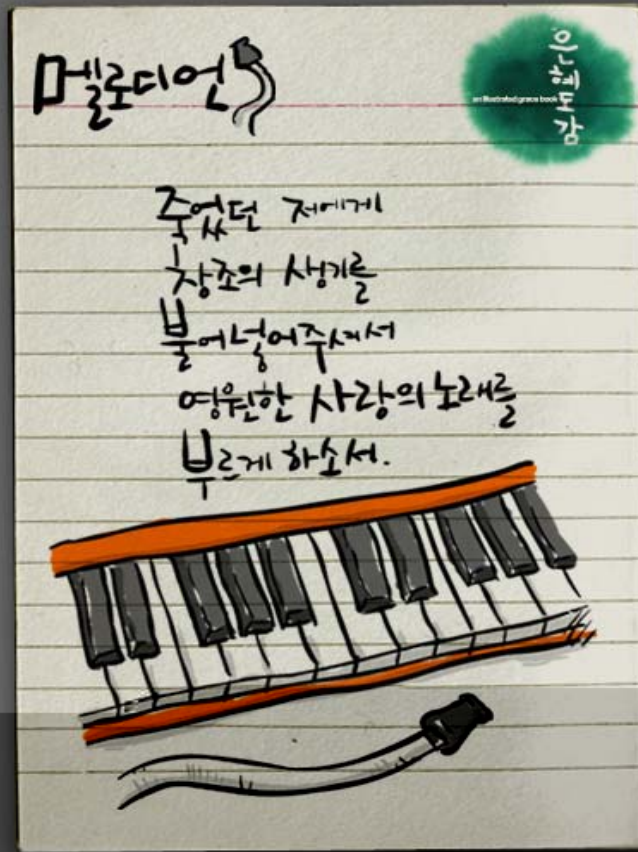
[www.coram.kr](http://www.coram.kr)

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닷컴이알~



안녕하세요... 전 규호입니다. 1982년생(12기)이고 숭실대 컴퓨터학과 4학년입니다. 방학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매일 학교 간답니다. 대학 초기에 방황을 하다 보니 학점 빵구가 많이 나서 지금도 계절학기 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계절학기 너무 힘들어요. 수업 시간도 길고, 1주일 배우면 중간고사 보고, 레포트도 내야하고... ㅠㅠ 그러니까 17, 18기들 저학년부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너무 놀지 말고.... ㅋ ㅋ

그리고 이번에 7/23~8/6 캄보디아로 IT선교를 갑니다. 원철이 형이랑 같이 정보대 신우회 사람들과 갑니다. 특히,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사고도 있고 해서 많이 걱정됩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27개월된 늦둥이 내 사촌동생이 멜로디언을 처음만난날.  
동생은 TV에서 보던 피아니스트를 따라  
화려한 연주를 해보았지만...  
소리가 나질 않았다.  
엉엉 우는 동생을 달래려 내가 공기를 불어넣어주니  
멜로디언 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동생은 다시 웃었다.

모습은 화려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이 함께하기를..

출처 갓피플- 은혜도감/김경송



10센티미터 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짜는 무엇이든 그 길이를 마구 찢고 다니면서 으스대었습니다. 난 길이가 5.4센티미터야. 난 키가 9.8센티미터밖에 안 돼. 난 코의 길이가 6.2센티미터야. 10센티미터도 안 되는 것들이 파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센티미터 짜는 저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울은 짜를 보자마자 무조건 짜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난 겨우 5그램이군. 찹식! 아주 가벼운 놈이네. 비켜라! 상대도 하기 싫으니깐!” 저울은 더 이상 짜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10센티미터 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저울이 짜기 멋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몹시 기분 나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10센티미터 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짜기 또한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